

## 2024 총선에 대한 제주녹색당 논의 및 입장 정리

### 1. 총선대비 당원토론회 (2023년 7월29일)

- 총선목표와 연합정치의 범위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 나눔

### 2. 당원집담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돌파구를 찾아서' (2023년 10월 19일)

총선 방침과 목표에 대해 기본적으로 선본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결정권을 위임. 다만 목표에 내용적 부분 추가하는 것으로 정리

\* '기후정치'와 함께 시민에게 접근가능한 현실 정치 목표가 추가되길 바란다는 제주녹색당의 입장 전달

### 3. 8월 운영위원회 (2023년 8월 4일) 결정사항

- ①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 제주녹색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당대표가 출마하는 것은 불가하나, 서울녹색당에서 입장을 정리한다면 적극 지원하기 결정. 이에 더해 보궐선거 출마 후보자에 대해 선거 이후 당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지도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로 함.
- ② 2024 총선 선거연합 : 녹색당이 기후정의 관련 단체와 차별철폐 의제 관련 단체들에 '비례플랫폼' 형식의 연합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이후 진보정당 등으로 확산되도록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 4. 11월 운영위원회 (2023년 11월 2일) 결정사항

- ① 제주녹색당은 지난 7월, 10월 총선토론에 이어 '총선 논의과정과 결정내용'에 대해 정보 공유의 시간을 갖기로 함.
  - 2024 녹색당 총선에 대한 Q&A (2023년 11월 17일 저녁 7시, 민주노총 세미나실)
- ② 추가 토론회 준비 여부는 Q&A 상황과 대토론회를 지켜보고 추후 결정한다.
  - \* 11/18 녹색당 총선 대토론회 이후 지역당 차원의 추가 토론회 진행 여부를 운영위 논의 후 결정하기로 하였고 지역토론회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녹색당의 기후정치 의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음

### 5. 총선토론회 '선거연합 당원총투표, 알고 투표하자!' (2024년 1월14일)

제주녹색당은 선거연합정당과 관련한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고 당내 다양한 목소리들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고, 25명의 당원들이 참여해 스펙트럼 토론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4시간 동안 다양한 의견들을 나눔. 토론 마무리 단계에서 '녹색당이 정의당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은 기후정치세력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제에 대해 참여자들이 스펙트럼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함 (0점~50점 미만: 5명/ 50점: 7명/ 50점~100점: 8명 의견제출 \*0점 부정의견~100점 긍정의견)

참고 <https://jeiugreenparty.org/posts/65a4fd51f88d0a185df332d1>

※ 각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과 결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록을 첨부합니다.

## <기록\_1. 230729. 제주녹색당 당원토론회> -----

### 1) 총선 목표

- “민주당과 협력 없이 녹색당은 당선 가능성 없다”는 발언에 대한 질문. 진보정당, 진보연합 플랫폼 했을 때, 어떤어떤 숫자 계산에 의해 진출가능성 있었던 것 같다.
- 진보진영블럭이 10% 정도(마지막 총선). 지방선거에서는 7%. 3% 얻어야 한 석.
- 정의당 내부에서는 이정미 대표가 가장 긍정적. 가장 긍정적으로 봐서 3% 예상. 당선자를 못 낼 것 같다는 의견 다수. 독자적으로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인듯.
-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7-8%. 몇 석은 될듯. 그안에 녹색당이 몇 번으로 받는지는...
- 지방선거보다는 총선 기준으로 봐야 정확한 예상 아닐까?
- 총선이 11%. 촛불 직후. 떨어지긴 하겠지만, 지방선거에서 7%로 예상.
- 7-8% 너무 좋게 보는 듯. 지금 양극화된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봐도 5% 미만일듯. 정의당 지역구 한 석도 못 나올 것 같음.
  
- 인지도 확보가 목표라면 후보가 한 명이라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 저거를 별개로 봐야 하나?
- 목표 병행하지만, 무엇을 중점으로 보는 건지의 문제.
- 연대로 초점을 맞춰서, 연대라는 스피커를 가지고 기후정치를 말했으면 좋겠다.
- 합당은 아니고, 공동명부식 비례 말하는 것?
- 후보를 지역구든 비례든 낼 것. 원내진입에 대한 시나리오 많다. 진보정당 합당, 민주당 연대 등. 정의당이랑 합당한다고 해서 녹색당이 원내진입을 할 수 있는 건가? 정의당에서 합당 제안한 것은 당내 리더십이나 지지율 하락 위기의 대응인듯 한데, 실질적으로 녹색당과 정의당 표를 합친다고 해서 원내진입 가능한 정도의 지지율인지는 의문임. 비례명부에서 녹색당을 앞 순번으로 준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해석인듯. 비례명부 정할 때 당내 경선 등 절차 거칠텐데, 녹색당이 앞 순번 받을것인지 확인할 수 없음. 민주당과의 연합에 관해서도... 결국은 연합이 안 됐던 부분, 민주당에서 성소수자 이슈 거절했기 때문임.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성소수자 이슈 받아안을 가능성 없음. 위성정당으로 원내진입을 한 정당들의 의원들의 행보 살펴본다면, 녹색당이 원내진입, 한 번의 원내진입을 위한 것인가? 한 번의 원내진입을 위해서 당명 버릴 가치가 있는건가? 총선 중요한 기회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는 전략으로는 추후 행보를 고민하기 어렵. 차라리 지방선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편이 나올 것 같다. 어떤 기후정치를 할 것인지, 정당의 노선 잡는 것으로 초점을 맞춰야. 원내진입, 한 명의 스타정치인 키우겠다는 목표일텐데, 녹색당의 환경과 조건에서 스타정치인 길러내는 것 굉장히 어려운 상황.
- 녹색당에서 스타정치인 바랐던 적 있는가? 아닌듯.
- 용혜인 의원은 스타정치인 된 것 아닌지.
-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가능. 현재 상당히 진이 빠진 상태인 듯. 지선 때 들어와서 1년밖에 안 됐지만, 다들 실패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듯.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했던 방법으로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아픔인 것 같은데... 새로운 방법, 새로운 시도를 해본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 아예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나가는 것 어떨까? 트레이닝되는 경험 필요한 것 같다. 뭐가 됐든 간에 새로운 방법 시도해보는 것 좋다.
  
- 설문지에서 “반정당의 정당”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 있었음. 녹색당의 강령 중 “반정당의 정당” 있음. 정치권력에 대한 당원들의 생각들. 강령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원내진입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상위 개념이 ‘반정당의 정당’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 벌어질 듯. 선거연합 때에도 다

수의 당원, 70% 이상이 연합 선택함.

- 강령,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는 정당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방식, 약속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
- 문항 속에서 “거대 양당 체제에 대한 반대” 나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 권력을 가지면 안된다는 선택, 3% 정도일 것 같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분들이 목소리 크기 때문일 것. 대부분의 당원들은 당의 결정에 따를 것.
- 3%까지는 아니더라도, 25% 정도가 정당 정체성 자체를 거부하는 사회운동이라고 선택. “반정당의 정당”이라는 강령 아는 사람, 40% 남짓임. 강령에 대해서 피터지게 싸워볼 문제라고 생각. 이거에 대한 결론, 합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 반정당의 정당 강령을 모르는 사람이 61%라는 것이 충격적.
- 반정당의 정당을 정당정치의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고 목소리 크고 수가 적다는 것은 인지. 제주 안에서 어떤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선거 토론 그런 것까지 다 열어놓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 공론화의 과정 안에서 목소리들이 나오고, 목소리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체적인 의견을 만드는데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녹색당에서 그런 훈련 없거나 결론을 냈어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경향성 있음. 오늘의 초벌과 전국위 결과를 가지고 당원들을 설득하고... 안되면 탈당하고...
- 녹색당의 특징, 핵심 리더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 과정에서 활동 당원들, 비활동 하지만 목소리 큰 당원들, 이런 목소리의 조율 어떻게 해야 할지
- 의사결정 과정, 결정된 것에 대한 토론과 참여, 이런 과정들 쌓여야. 운영위 토론 -> 전국위 토론 이런 과정들 속에서 공론이 형성되어야. 운영위를 고독하게 내버려 두지 말아달라
- 개인적으로 접수된 의견 소개 [강서구청장 김찬휘 대표 출마 찬성, 지역구 후보 최대한 내자, 단일화는 시작 후 구도 보면서]
-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 위해서는 당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전에 다른 정당 활동했었음. 토론회 보면서 “나는 왜 제주도에 와서 녹색당에 가입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 던지게 됨. 전국위에 우리의 의견은 얼마만큼 전달이 되고 영향을 미치는가 고민됨. 기존의 큰 정당이나 이런 데에서는 지방 당원들 숫자로 여겨져 옴. 동원 가능한 숫자. 계수되는 당원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표현 하는 당원이 되는 제주녹색당 토론회, 색다른 경험. 관심갖는 분야를 어떻게 같이 해나갈지 고민하게 되었다. 토론문화, 좋은 경험. 녹색당의 초록색 마음에 들었다. 쿼어문화축제에서 김순애 위원장과 얘기했을 때 제주에서 녹색당원 500명 안 된다는 얘기 듣고... 대한민국의 허파로서 녹색 국회의원 나올 데는 제주 밖에 없지 않느냐에 대한 말에 설득됨. 1년 고민하고 가입. 원내진입을 하든, 기후정치를 하든, 녹색당은 기후에 대해서는 전문가 정당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할 것 같다. 넓게 생각하면서 의견을 모아보면 좋겠다. 이상적일 수도 있지만, 유토피아적으로 가야 희망이 생겨난다고 생각함.

## 2) 연합정치의 범위

- 정책싱크탱크 같이 하자는 이야기도 있음. ‘너머서울’에서 공공요금, 공공버스 아젠다로 다같이 모였다고 하고 잘 되고 있다고 함. 정책싱크탱크를 만들고 정당마다 가져다 쓰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도 있음.
- 제주의 상황과 수도권 상황 많이 다른 듯. 전국당에서는 이런저런 요청과 제안 많이 들어오는데 당 차원에서 정해진 입장이 없어서... 수세적 대응 상황이라... 현실적인 고민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생각 모아봤음 좋겠다.
- 1번 절대 안됨.
- 진보당 선거전략,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곳에 진보당이 후보를 내는 전략. 정의당은 녹색당에 많은 러브콜 보내고 있음.

- 윤석열 퇴진 정책연대.
- 전략적으로 '기후연맹' 이라는 식으로 창당해서 진보정당 담아내서 비례후보를 정리하는 방식 어떨지. 지역 선거는 각자 자기당으로 하고. 비례는 진보정당 모으고, 지역구에서는 자기 정당으로 가기. 2번.
- 정의당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합당 제안 말도 안 됨. 특정 정당 중심 단일 정당은 아니고, 2번. 비례플랫폼 정도면 괜찮다. 비례후보를 내기 위한 비례플랫폼을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다.
- 기후를 전면에 내세운다면 사실상 같이할 수 있는 그룹. 기후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 불가능한 안일 듯. 정의당 내 전환 세력 정도일텐데, 정의당 내 전환 세력과 같이 가는 것 녹색당에 유의미할까? 사실상 정의당 내 녹색당 방식이 되지 않을까? 녹색당원들이 그런 정파 문화를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정의당 내 기존에 정파들 잘 조직돼 있는데, 그 안에서 녹색당, 세력화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임시 비례 플랫폼 안에서도 잘 조직된 세력화 역량 있는지 의문.
- 안 해봤는데 지레 겁 먹는 것 속상하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만 생각하는 듯.
- 해볼 수야 있다. 근데 리스크가 크다는 것. "팽당한 정당".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고 할지말지 결정하는 것은 당연.
- 정의당 전환 워크숍 갔다옴. 총선 앞두고 어떻게 연대점이 있을까 하여 다녀온 것. 거기에서 한 얘기. '전환'이 녹색당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강령, 탈성장으로 전환 가능할수도. '전환' 세력과 합당한다고 하면, "정의로운 녹색당" 등. 그렇다면 녹색당이 '전환' 세력을 흡수하는 모양새일 것 같은데...
- 선거 얘기 한다고 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안 없음. 오긴 왔다. 전운위에서 당선 꼭 됐으면 좋겠다는 분위기. 공동비례명부작성으로 소수정당들의 힘 모으기. 그런 제안 녹색당이 선도적으로 하고 제안하고 하면 좋겠지만, 현재 그런 역량과 리더십 있는지 잘 모르겠다. 내년 선거, 윤석열 정부를 지지할 것인가 견제할 것인가 두 축으로 가져가게 될텐데, 견제세력 민주당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 있고, 아니면 누구여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없음. 제3지대의 표 우리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는건가. 국민들이 제3지대를 원하는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음. 녹색당은 국민들, 시민들이 원하는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내세울 수 있을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 그런 시나리오를 러프하게 내세우고, 선도적으로 '기후연맹' 등 제안하고 핵심적인 강령들에 동조할 수 있는 세력과 함께 간다고 했을 때, 열린 정당으로 의제 확산하고 주도 세력을 녹색당으로 할 때, 어떤 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음. 그런데 지금 녹색당의 형편에서 집행가능한 것인가는 잘 모르겠음. "정당을 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력 획득" 이걸로 모여 있다면... 새로운 정치적 비전이라는 꿈을 모색해나가는 과정에서 답답하겠지만 2024 총선의 공간을 녹색당이 1~2%라도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한다면 공동명부를 시나리오로 가져갈 수도 있겠다. 이거를 녹색당에서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갈 수 있을 텐데...
- 지역구도 그런 식으로?
- 지금까지 진보정당들이 겹쳐서 낸 적은 거의 없음. 이 새로운 플랫폼을 비례 이상으로 가져갈 것인가는 또 다른 논의.
- 위기상황이나 비상상황 같다.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으로 위기. 정치적으로 윤석열 정권이라는 세력이 비상식적. 책임감도 느낄 수 없음. 민주당이 그렇다고 해서 야당으로서 자격과 영향력 없음. 사회적 갈등, 양극단 갈등 상황. 기후상황 점점 악화, 기후재난. 이런 상황에서 리더십도 별로. 이럴 때 제3지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뭔가 답을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 있을 것 같다. 답이 안 보이고 리더십이 안 보임. 해결하려는 의지 안 보임. 조금이라도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비례 플랫폼 정도 해볼 수 있을듯.
- 만약에 한다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방식.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던지... 기후난민. 한국에서 기후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거나. 폭염시 야외노동 금지 및 일당 지급 등... 다양하게 기후와 관련된 정책 구체적으로 제안해볼 수 있을듯. 기후에 대한 선명한 제안 하면서 비례나 정당에 대한 비전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큰 틀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비례플랫폼에 들어올 정당이 점점 줄어들 수 있겠지만...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의제를 포기하면서 플랫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

- 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함께하자고 해야지. 가장 보편적인 것을 가지고 같이 하는 것은 별로. 우리 것 많이 버려야 연대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진 않을 것. 어느정도 수위까지 타협할 것인가. 우리 걸 내세워서 협상 안되면 하지 말자는 것에는 반대. 조금이라도 더 알리려면 제 살 깎아서라도 플랫폼 해야 한다는 입장.
  - 비례플랫폼을 떠올리면 제안할 수 있는 그룹, 진보정당, 기후정의동맹, 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에서도 선거전략 세우는 과정.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그룹, 진보정당과 기후그룹. 그 안에서 의제에 대한 논쟁이 치열할 것 같다. 녹색당에서도 전기요금인상에 대해서도 토론 논쟁 많음. 현실적인 공공성 갖고서도 논쟁이 많을 것 같고, 단일한 의제 만들기가 어렵. 그렇다면 비례연합에서는 몇 가지 상징적인 차원에서 기후의제 던지는 것이 가능. 기후세력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의제 러프한 것 몇 가지로.
  - 일단 들어가서 우리 걸 말해야.
  - 다 알고 다 하는 얘기를 해서는 하나하나한 말. 훨씬 더 논쟁적인 주제 필요. 결론이 나 있는 대답이 아닌 것으로 연대해야 민주당 아류가 아닐 수 있음. 국제 연대, 노동자 연대 등 꼭 해야 하는 말들을 더 열심히 하는 방식으로. 논쟁적인 의제이기 때문에 연합이 공고해질 수도 있고. 논쟁 속에서 정치역량 생겨나고 발전하게됨.
  - 동의. 관광객을 줄이자의 전국버전이 될 텐데, 이런 도발적 의제 던지는 것, 녹색당이기에 가능한 것.
  - 그건 과정에서 얘기될 수 있는 것.
  - 기후 위기 안 썼으면 좋겠다. 기후 재난이라던지 이런 식으로 용어 통일 됐으면.
  - 환경 의제와 계급 의제, 그것을 같이 묶을 수 있는 것이 기후 정의라는 용어일듯.
  - 기후 정의라는 것이 아직은 인식을 확산해나가는 과정에 있음. 인식 확산 과정에서 녹색당도 기여하고 있지만, 기후사회운동 단체들이 더 열심히. 기후 선거를 하겠다고 했을 때, 이걸 녹색당이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녹색당하고 기후 단체들이 모여서 제안을 해야 하고. 반드시 녹색당에서 정치 경험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진짜 기후 정의운동에서 상징적인 인물을 내세워서 시민사회 기후 진영 안에서 기후 선거를 제안하는 게 더 괜찮은 경로가 아닌가하는 생각.
  - 재난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소수자. 사회적 자원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됨. 녹색당 이 사람들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녹색당에서 소수자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가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재앙이 일어나는 현실에서 필요한 정치.
  - 녹색당이 원하는 것, 기후정의. 기후선거 한다고 할 때 탈성장으로 플랫폼을 만들기보다는 반자본주의 명확한 시민사회와 함께 제안해야하지 않을까.
  - 비례플랫폼을 기후 중심으로 가자는 것까지는 동의되는 듯.
  - 창대님 말씀 들으면서 녹색당 있어야 할 곳 분명한 것 같다. 이것을 총선이라는 진입 장벽 속에서 어떻게 중재할 것인가가 중요.

## <기록\_2. 231019. 제주녹색당 당원집담회> -----

### [총선 방침 및 목표]

- 기후정치 세력화를 위해 기후녹색운동과의 연대를 강화한다.
- 녹색당의 가치와 명분을 지키는 연합정치를 통해, 원내진입을 달성하여 기후녹색정치 실현에 기여한다.

### A: 전환의 국면/갈림길

- 합치지 않으면 다같이 죽는 국면.
- 3당 모두 총선의 전초전으로 치러진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

- 진보당: 2022 대선부터 꾸준한 주거권 활동, 울산 집권으로 자신감. 물량공세.
- 정의당: 내부분열과 리더십 갈등에서 벗어날 구도. 권수정 후보 무리해서 출마. 대표단에서 큰 물량지원.
- 녹색당: 진보진영 단일화의 '중재자'
- : 다음 총선
- 정치적 양극화. 국힘(윤석열이라는 리스크. 신당 창당에 대한 논의. 기존 지지층 확보를 위한 극우-보수 좌표), 민주당(민생 집중)
- 위성정당 제3지대 행보: 조정훈(국민의힘 입당-마포구 공천?), 용혜인(이재명 정책특보. 민주당 쪽과 연합할 가능성).
- 금태섭 신당? 양향자 신당?
- 진보당: 현직 의원들의 친민주당 행보. 내부 안정. 지난 대선부터 내세운 '진보대통합'과제?
- 녹색당: '기후정치'의 축? 게임체인저로서의 역할 가능? 진보진영 단일화의 중재자?
- > 선거연합 가능?
- 진보4당 비례연합정당 (강서보궐선거로 어렵다고 확인됨/ 진보당은 민주당 당원들의 표를 의식하고 있어. 강성희 의원 행보/ 정의당은 수많은 계파 사이에서 이정미 대표가 힘을 잃어/ / 1~2개 정당하고만 이라도 연합?)
- 특정정당과의 연합 혹은 비례플랫폼 구성
- 특정정당과의 일시적인 합당

B: 민주당 아니면 선거연합 다 가능해(진보정당 모두)

- : 방식에 대해서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경로를 잘 짜야 한다 (1:1 비율)
- : 한계를 뒤선 안 된다. 어느 정당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선본에 맞겨야

C: 동의

- : 목표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해. 지역정당과 소통이 되기를 마라. 진보당은 언어들에 확실하고 명료해 대신 당원들끼리 오픈되지 않아. (명료해야)
- : 서민정치를 위한 정책을 부각시켜야 (진보당, 기본소득당도 내고 있으니 녹색당도 내세워야)
- : 기후녹색운동.. 추구하지만 다른 정당들과 같이 연합하려면 서민정책 준비하고 표현해야
- : 초안이라고 내려보내는 자체가 민주적이지 않다고도 느껴져

D: 생각이 달라

- : 방침 및 목표가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것이라 생각해 (헌법 같은 것)
- : 이 목표에 이견이 있다거나 주석을 달아야 하는
- : 연합정치에 동의한다기 보다 방법이 그것밖에 없음에 동의
- : 훈련을 해보는 것이 보궐선거의 목표였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안된 것

E: 방침과 목표가 굉장히 추상적...연대가 안 될 경우 완주할 것이냐 말 것이냐...

F: 방침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정해지기보다 선본에 자율성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G: 제주녹색당에서 7.29 선거토론회 나왔던 내용과 같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포괄적 표현이라 생각해

- : 기후녹색정치 라는 목표 안에 서민, 기후약자의 삶을 포괄할 수 있을 것
- : 기후얘기만 한다고 문제제기 할수도 있지만 기후정치를 내세워야 하는건 어쩔 수 없어

A: 연합을 안 하면 공멸. 이번 선거에서 중재자로서 녹색당이 더 나서는 것 말고 무엇을 할 수 있지? 당

원들이 고민하고 토론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J: 더 진보적인 아젠다가 나와야 한다.

:제주 지역에서 먼저 선거제도를 개혁하자. 제국이 양당구도의 틈을 벌리고 선례를 만들자.  
선거제도 개혁은 전당적 에너지를 모두 모으는 일이다.

F: 진보정치가 가능한가? 정치제도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정치가 불가능할 것이다. 현실정치 포기하고 운동정당으로 나가야 하나? 이슈와 운동 중심 vs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을 계속 두드려야 하나. 연합을 현실적으로 고민한 첫 경험이었다. 대중들을 잡을 수 있는 고민과 중요한 아젠다를 놓치지 말아야겠지만

C: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사람들은 일반사람들.. 기후정치 안에 담겨진 철학을 99.99%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 소통해야 할 것. 기후정치.. 대부분은 잘 모르는 말...

I: 기후운동세력뿐만 아니라 현장의 운동세력과의 결합이 필요

F: 운동판 당원과 당내 당원 간 시너지가 왜 안 이루어질까. 진성성 있는 대화와 소통이 필요

H: 전국위 결정에 따르겠다

C: '기후정치' 라는 말은 지금 이 미팅이나 녹색당원들에게 익숙하지만 대부분의 서국민들에게 과연 익숙한 말과 내용일까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기후문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축산업 문제, 기타 자연 파괴, 자동차 배출가스 등등... 기후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은 너무나 많아서요.

그래서 아는 이들에겐 '포괄적' 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겐 추상적인거죠.

: 총선에

1. (제주)녹색당이 가장 진보적입니다. 이걸 자신있게 선거에 어필해나가도 될 듯 해요.
2. 서민을 생각하는 정책도 '기후정치' 와 더불어 세우고 어필해야 할 거 같아요.
3. 다른 '진보'정당들과 연합은 어쩔 수 없이 동의.

F: 정책적 목표가 하나더 추가되어야 한다

: 기후만으로는 소통이나 설득력이 없어

: 호소력 있는 정책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 각론에서 6가지 상황이 나열됐는데 이 부분은 선본의결정으로 맡기자

D: 기후정치와 생활과 괴리감이 있다

: 기후휴업 등 김유리 정책에 대해 당원들 조차도 생활과 기후정치는 별개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쉽다.

F: 좋은 정책이 확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중 전략적으로 확산시키지 못했다. 부족했다. 이방법을 찾는 것도 목표 안에 들어가야 한다.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체감될 수 있는 고민)

B: "정책배달라이더를 모집합니다"

**선본에 위임/ 목표에 내용적 부분 추가하는 것으로 정리**

- \* 총선 집행부 결정에 따르겠다. 선본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 \* '기후정치'와 함께 시민에게 접근가능한 현실 정치 목표가 추가되길 바란다.

### <기록\_3. 231102. 제주녹색당 운영위원회> -----

- A- 구청장 선거 상황을 보며 확고해진 생각. 혼자서는 돌파할 수 없다. 사람들과 연대해보는 경험이 필요하다. 성격이 다르지만 목표를 공동 설정하고 연습을 해 볼 기회가 필요하다. 많은 설계가 필요하지만 진보연합연대는 열심히 해야 할 것
- B- 반윤석열 전선을 세워야 할 시민진영에서 낙선운동은 서로가 합의하기 가장 쉬운 지점일 것. 정치적 조직을 통해 선거에 후보전술을 적극적으로 나가기 보다 스펙트럼을 너무 넓어. 당장 선거에서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 구체적인 생각이 안나올 것 같았다. 현실적으로 기후녹색운동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기후운동과 녹색정치 세력간 중간 존재가 필요한 상황.
- C- 당무를 맡은 당원과 운동하는 당원들 간의 거리가 멀다에 공감. 총선을 통해 노력해보고 우리 당이 재편되는 기회로 삼아야하지 않을까. 선거 때마나 토론을 통해 나온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안해본 것을 해보는 것이고(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은 다른 것) 정치적 무력감이나 절박감이 큰 상황이다. 당이 재편되기를 바란다.

지난 총선때는 애매모호했다 갈등을 해결이나 봉합도 아니고 새로운 합의를 만든 것도 아니었다. 이번에는 확실히 당론을 정해 실험해보고 평가해보아야 할 것

- A- 민주주의는 누구나 말할 권리가 아니다. 정치공동체로서 결성한 후 발언할 역량이다.
- B- 정치적 그룹을 만들 훈련이 안된 녹색당. 책임있게 총선을 고민하는 운영위..자꾸 말을 해야 고민이 되는 것
- C- 다 마음에 안 든다는 당원들이 많지만 맘에 안 들어도 함께 한다는 공통성 만들기가 필요해.
- B- 선거연합은 앞으로 토론회 때 많이 다뤄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어떠한 방법이든 연합을 해야한다는 기조는 대의원대회 때부터 정리되어 온 것. 이 당론을 강력히 가져가려는 당무위에 위임하고, 지역토론회에서는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이냐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하자. 선거 연대한 기조는 동의. 방법은 선본에 위임.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를 토론하자.
- D- 시급한 기후 현안(핵오염수, 제2공항 등)
- E- 운영위원들은 토론회에서 이미 많이 이야기가 나눠졌다. (선거 연대한 기조는 동의. 방법은 선본에 위임) 결국 총선때도 반윤석열 전선, 거대 양당 중심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므로 녹색당 입지가 더 좁아질 것. 당무위 결정에 따라 총선을 준비하던지, 총선을 포기하던지를 결정해야 할 것. 이왕 선거연합에 대해 결정된 것이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
- B- 대토론회 주제에 기후정치 내용을 추가하자고 제안하자
  - '총선 의제'는 기후정치 국면에서 (탈석탄, 원전, 후쿠시마... )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각 지역별로 토론을 통해 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B- 선거연합에 대해 지역당원들에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져달라는 취지로 지역토론회를 제안한 것일 것. 신청받아 지역 당원들이 질문하고 답하는 자리를 마련하자.

A-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해서 운영위만 참여했던 것인데.. 한 번 해볼까는 아니다. 관심은 있지만 어색해서 못 오는 경우가 많을 것.

B- 언론에 도배되는 정의당의 목소리. 어떤 당원들은 녹색당은 뭐야? 라고 생각할 것.

F- 지난번 제녹당집담회에서 개인의 목소리만 정리된 것.  
'현실적으로 선거연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된 것  
'기후정치를 구체화'

A- 결정을 위한 합의까지 가는 회의 구조인지 짚고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  
- 소회를 나누는 이야기 장터가 아닌 찬반논의의 시간 위해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당원에게 전하고 각자의 입장을 정리하고 오라고 주문하는 자리여야 한다.

B- 안내 문자 전송 후 개별 연락

A- 자리를 열겠다는 문자 안내 후 답신이 오는 것을 보고 자리를 열자.(3~4명이라도 온다면 열어야)  
"2024 녹색당의 선거연합은 어떻게 결정되고 있고 과정은 어떤지 정보를 나누고 안내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Q&A

-토론회를 한다면 기후정치란 무엇인가 가지고 할 것인가? 전국 차원의 집담회에 참석하는 것이 나온지...

A- 제주녹색당의 입장이 정리될 토론회는 필요하다.

F- 선거 관련 토론회는 정말 여러번 했다. 오는 사람은 항상 똑같다. 토론 안 한 의제가 있다면 해야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토론의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A- 사전 발표(묻고 답하기)가 있기 때문에 절차적 당위성은 있는 토론회다.

B- 토론을 하려면 '기후정치의 의제는 무엇이어야 하나?' 등이어야 할 것

A- 그렇다해도 또 오던 사람만 올 것. 정보가 제공된 후 토론 (2번)

C- 지금 공유할 정보가 없는 것 아닌가. 대토론회 등에서 녹색당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 정해져야 토론이 가능할 것.

B- 선본에서 다 짜여지기 전 지역에서 토론회 제안하는 형식

F- 제주에서 따로 선거 관련 토론회 마련보다는 18일 대토론회 참여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C- 동의해. 제주의 특수한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지 잘 모르겠고 논의가 있었다만 남을 느낌. 지역토론회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내용이 있다면 해야 한다.

## <기록\_4. 231117. 2024 녹색당 총선에 대한 Q&A> -----

일반 당원 참여자가 없어, 참여한 운영위원들만 기존 입장 재확인.

## <기록\_5. 240114. 선거연합 당원총투표, 알고 투표하자!> -----

☞ 상세보기 [jgp \(jejugreenparty.org\)](http://jgp.(jejugreenparty.org))

제주녹색당은 선거연합정당과 관련한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고 당내 다양한 목소리들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5명의 당원들이 참여해 스펙트럼 토론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4시간 동안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토론 마무리 단계에서 '녹색당이 정의당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은 기후정치세력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제에 대해 참여자들이 제출한 의견입니다.

※ 스펙트럼 토론이란

어떤 의제에 대해 0점~100점 사이 자신의 점수를 정하고, 비슷한 점수의 의견 혹은 상반된 의견을 가진 상대방과 충분히 듣고 말하며 자신의 입장을 확인하는 토론 방식.

< 90점 > 익숙한 패배가 아니라 시도해보지 않은 것을 해박야 녹색당이라는 조직 내부에도 동력이 생길 것 같다. 녹색당이 창당 할 때도 수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과감한 시도로 여기까지 왔다. 창당 12년이라는 시간동안 새로운 시도를 해오고 있다.

< 90점 > 정치세력화가 이미 되었다. 오늘 토론회 덕분에

< 81점 > 2018년(지방선거), 2022년(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서 녹색당이 굳이 정치인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접어두고, 선대본이 꾸려졌고 선거연합정당을 하기로 정하였으니 그에 따르고 열심히 당원으로서 함께 하려 합니다. 어떤 과정에서 무시당한 부분도 있지만 선거를 통해서 우리 목소리를 낼 있는 기회이니 선거연합정당을 꾸리는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 80점 > 힘이 약했을 때는 힘을 모아야 한다.

< 79점 > 선거라는 공간에 다양한 시도와 평가가 이어져야 합니다. 선거연합정당 시도 역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의 나홀로를 넘어서야

< 75점 > 능력(실력)이 부족하지만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 70점 > 지금까지의 선거연합정당 논의 과정을 존중하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다음 페이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후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당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역할을 하겠습니다.

< 65점->60점 > '도움이 된다' -> 도움이 안 되더라도 해보자. 당을 새로 구성해야 하는 시점인 듯. 깨져보자.

< 50점 > 녹색당을 좀 더 신뢰해 볼 여지를 깨달음

< ? > 개인적인 생각과 일하는 사람을 위하는 생각으로 결정내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선택에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 50점 > 모르겠다! 흔들린다!

< 50점 > '1+1=2 또는 2.5'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성 50%, 불안 50% 기준으로 50점을 주었습니다.

< 50점 > 흔들린다. 몹시 흔들린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 50점 > 선건연합은 지지함. 단 정의당과만 하는 것은 문제. 진보정당이 기후운동세력과 함께하길 희망함.

< 50점 > 과정에는 동의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의합니다.

<30점->50점 > 대화 파트너의 의견에 동의하게 되었음. 근처 결의 대상과 가장 먼저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30점 > 총선 이후에 녹색당원이 늘어날까요? 녹색당의 역량을 먼저 키워야 합니다.

< 5점 > 정의당 중심의 선거연합정당에서 녹색당 고유의 의제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녹색당만의 정책과 비전을 더 잘 준비하여 다음 선거를 설계하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유권자와 정치의 힘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 0점 이하 > 우리가 만들어낼 미래를 믿고 다급히 '편법'하지 않기를. 기후재난의 원리를 답습하지 말자.

<-5000점> 녹색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할 필요 없는 일까지 에너지를 소비하며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과정의 중요성도 있지만...